

외국인 '코스피 컴백'... 삼성전자·하이닉스 자금 몰렸다

조선·방산주 빼고 반도체주 담아
삼성, 전세계 영업익 1위 기대 솔솔
하이닉스, 4위-3위로 상승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의 '입맛'이 바뀌고 있다. 한국 주식을 다시 사면서 반도체 관련주를 끌어담았다. 외국인이 이달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상위 5종목 중 상위 2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정도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조선 및 방산을 덜고 그 자리에 반도체를 담는 모양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9975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순매수 규모는 각각 2조3470억원, 1조5490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달 7일까지만 해도 순매도(4659억원) 1위 종목이었지만 3거래일 만에 반전된 모습이다.

외국인이 최근 반도체주에 다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



ChatGPT로 생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며 코스피로 복귀하는 외국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7월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에서만 약 50조원의 수익을 거

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디램(DRAM) 부문의 영업이익이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 전망은 더욱 밝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

해 영업이익을 327조원, 2027년 영업이익을 488조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어를 제치고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나란히 3위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영업이익 순위는 2026년 4위에서 2027년 3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2027년 전세계 영업이익 최상위 10위 중 한국 메모리 반도체인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3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증권은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251조원으로 추정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245조원)와 알파벳(240조원)의 영업이익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2027년에는 358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했다.

증권사들의 눈높이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 달 전 제시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25만원에서 30만원 선이었으나, 최근에는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제시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110만원에서 170만원 수준이었지만 1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라왔다.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곳은 SK증권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40만원, SK하이닉스는 200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인공지능(AI) 투자 명분 자체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메모리가 핵심 병목이라는 점도 변하지 않는다"며 "이는 AI 사이클에서 메모리 랠리의 핵심이었던 거시경제를 이기는 실적의 지속이 유효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2026년, 2027년 영업이익을 각각 327조원, 417조원으로, SK하이닉스는 각각 253조원, 328조원을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베팅 커진 서학개미, '고위험·단기' 쏠림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2배·반도체 레버리지 상위권
보관금액 연초 대비 100억달러 감소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방향이 '고위험·단기 대응'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개별 성장주에 대한 베팅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2배 ETF'로 약 1억 2966만달러 순매수됐다. 이어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약 1억 2526만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테슬라 본주 역시 약 1억 2206만달러 순매수되며 3위에 올랐다. 레버리지 E

TF와 본주를 동시에 담는 매수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동일 종목에 대한 방향성 베팅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수익 추구 성격이 짙다.

이외에도 로켓랩,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종목과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등 빅테크·반도체 종목이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됐다. 성장주와 레버리지 상품 중심의 매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AI·우주항공 등 고성장 산업 전반으로 투자 대상이 확장되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이 진행되며 중동 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형성된 점도 투자 심리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은 위험자산

에 대한 단기 반등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매매 흐름과 함께 해외주식 보유 규모는 연초 대비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월 초 1694억 4602만달러 수준에서 4월 초 1500억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이후 4월 9일 기준 1597억 7985만달러로 일부 반등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100억달러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절세 계좌로 주목받았던 RI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RIA 계좌는 23개 증권사에서 총 9만 1923개 개설됐고, 누적 잔고는 4826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좌당 평균 잔고는 약 525만원 수준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오른쪽)와 정지원 빌드블록 대표이사가 하나증권 THE 센터필드 W에서 열린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증, 빌드블록과 글로벌 자산관리 강화

패밀리오피스·고액자산가 대상

하나증권은 미국 부동산 투자 플랫폼 기업 '빌드블록'과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증권은 패밀리오피스 및 고액자산가 손님을 대상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 정보 제공과 투자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미국 부동산 투

자 원스톱 솔루션 제공 ▲해외 부동산 투자정보 공유 및 자문 서비스 강화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 ▲양사 손님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자산 증대 등이다.

협력파트너인 빌드블록은 미국 실리 콘밸리에 본사를 둔 부동산 전문 기업으로, 매입 자문부터 직접 시공, 사후관리 및 해외 투자 신고까지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개인 연락 유도하면 의심하세요"

금감원 Q&A

불법사금융 조직 '이실장' 주의보
개인정보 요구·지인 협박까지
대출 중개·실행·추심 분업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조직, 이른바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중개부터 실행, 추심까지 역할을 나눈 조직형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정장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상담을 유도합니다. 이후 '통

화 품질 불량' 또는 '신용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로의 재접촉을 요구하며 불법사금융업자로 연결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는 초단기·초고금리 구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자필 차용증 사진이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지연될 경우 텔레그램, 대포폰 등을 이용한 협박이 이어지며, 확보한 연락처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등 불법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연락했다라도 개인 연락처나 SNS로 재접촉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얼굴이 포함된 차용증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한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불법사금융은 구조적으로 채무를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HUG PF로 구조화금융 입지 확대

준공 이후 사업장 유동성 확보

한양증권이 구조화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한 금융주관 실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양증권 신디케이션본부는 올해 들어 HUG 보증을 기반으로 한 준공 이후 주거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을 연이어 주관하며 자금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남 여수 지역 주거사업에 대해 610억원 규모의 준공 후 주거사업 PF 금융주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전남 광양 및 경북 구미 지역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기반으로 한 금융주관을 완료한 바 있다.

해당 금융은 HUG 보증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준공 이후 사업장의 유동성 확보와 사업 안정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하은 기자